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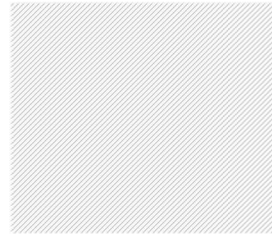
임시접수번호	22-6433
접수일자	22. 9. 26
즉 일 팀	사이버

고 소 장

고소인



피의자 : 임 찬 용(59.04.10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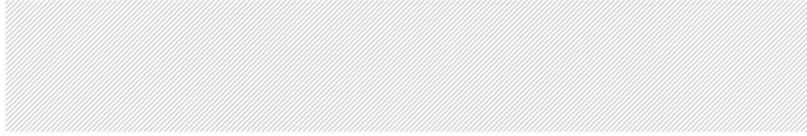


죄명 : 형법 제307조②항(거짓, 명예훼손죄)
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률 제 70조②항(거짓, 명예훼손죄)

서울서초경찰서 귀중

고 소 장

고소인



피의자 : 임 찬 용(59.04.10생)

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96번길 20, 203호 (복정동)

사무실

서울시 강남구 노현로94길 13(역삼동) 예일패트빌딩 4층

직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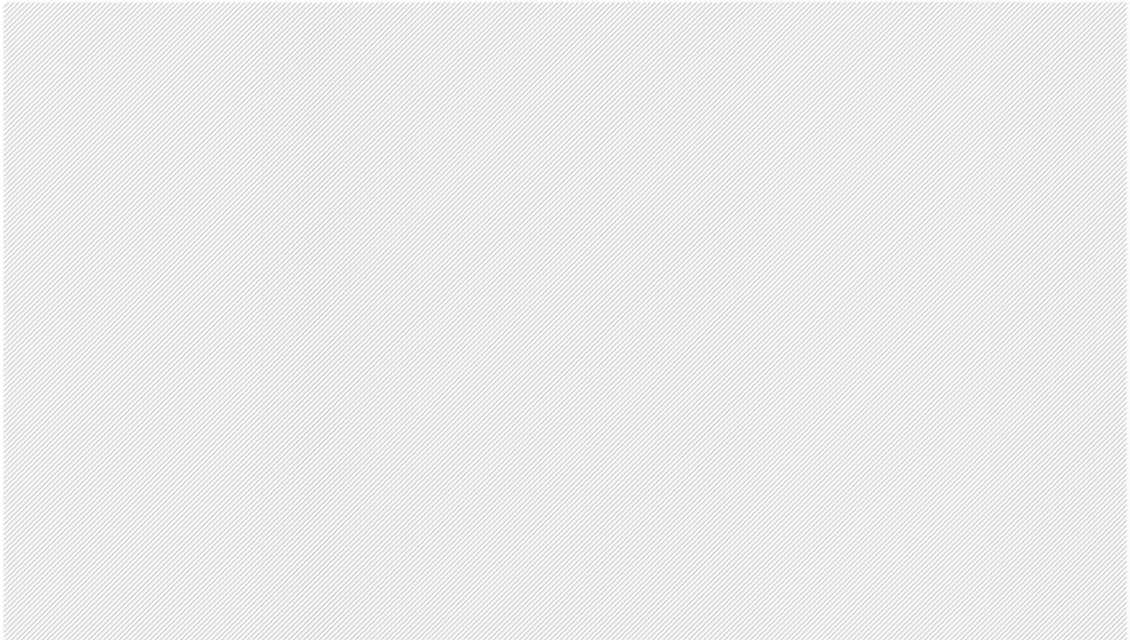
LPN로컬파워뉴스 법조팀장

(前 검찰수사과장, 010-5313-7538)

고소 내용

1. 신분 관계

1)



2) 가 운영하는 카페 정관에는

피해사항을 '6하원칙의 5줄 정리', '증거부족', 정관위배자 등은

관청피해자모임(다음카페)에서 퇴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

- 3) []는 기무사에서 사직서가 위조되어 퇴출이 되었어,
현재 복직소송 중인데 막강파워 기무사와 싸우다 보니 사피자들의
응원이 필수로 생각하여
사피자 9500명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
- 4) 쌍방은 **관청피해자모임**(다음카페) 회원들입니다

2. 사건 발생 배경

카페 글로 서로 갈등이 발생하고
임찬용이가
먼저 2021.10.5.경 []를 고소하고 무혐의됨
(서부검찰 2022형제7553호)
2022.8.14.일, 2022.9.24.일 최근에 아래와 같이
[]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글을 올렸음

3. ‘임찬용’의 범죄 행위 1 (글)

임찬용은 2022.9.24.22시39분에
[]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피자 9500명이 모셔진
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자유게시판1- 42417번 글에서

<이 카페지기이자 고도의 사기꾼 []가 구속되어야 할
신문기사([]는 윤통의 탄핵 원인 제공자이자 검찰의
선택적 수사 수혜자) >
란 제목으로

<http://www.ilpn.kr/>

LPN로컬파워뉴스

인터넷 신문

<https://cafe.daum.net/gusuhoi/3jlj/42417?svc=cafeapiURL>

위와 같이 **게시**되어 있습니다

위 글의 **댓글**로는

임찬용

22.09.24 23:10

본 필자가 기자 신분으로 기고한 검찰 수사과장 출신의 구국심정을 위한 신문기사는 단 한점의 허위가 있다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갈 각오가 되어있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.

이는 2차례의 책자 발간을 통하여 필자가 주장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입증해 왔다.

필자는 이순신 장군 및 김구 선생님처럼 구국 일념의 신념으로 사법정의 및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건조작이 없는 검찰 및 법원을 개혁하기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.

이에 터잡아, **고도의 사기꾼**의 수사기관을 통한 사건은폐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 탄핵 책자를 통하여 역사와 국민에게 엄중하게 고발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.

임찬용 22.09.24 23:24

와 동업자인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도봉경찰서에서 무고죄로 수사중에 있는 바, 이를 은폐할 경우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. 그 이유는 필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명백한 증거가 첨부되었기 때문입니다. 이 또한 추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.

,판사장군7명날림,무죄5개 2022.9.25.11:57

로컬파워뉴스에 가 유명인사로 떴네요. 오늘 처음 봅니다.

카페 감사 2022.9.25.10:15

로컬파워뉴스에 가 유명인사로 떴네요. 오늘 처음 봅니다.

저런 기사를 보고

가 구속된다는 소문이 있었군요 저도처음보고 자주방문을 안해 지켜보겠습니다

4. '임찬용'의 범죄 행위 2 (글)

임찬용은

2022.9.24.22시39분에 올린 위 3항 기사

즉, <http://www.ilpn.kr/LPN로컬파워뉴스>. 인터넷 신문

내용을 찾아 들어가 보면

LPN로컬파워뉴스. 2022.08.14 11:47에

<검찰을 범죄조직으로 만들어 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밖에
답이 없다!! / LPN뉴스> 제목으로

- 기자명 임찬용 전문기자
- 입력 2022.08.14 11:47

위 기사 내용의 일부로

....필자는 사법경찰관 []에게 피의자 []의 증거
인멸 발생 및 사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**사전구속영장**을 신청
해 달라고 요구하였다.

실제로 서대문경찰서에서는

피의자 []에 대하여 단 한차례 소환조사 마저도 실시하지
않은 채 **허위**내용의 불송치결정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든 범
죄사실을 각하 처분해 버렸고,.....

출처 : LPN로컬파워뉴스(<http://www.ilpn.kr>)

라고 적혀 있고

위 기사에 첨부된 **첨부물 1** (고소인 진술서) 3-4쪽을 보면

....피의자 []는(3쪽)

행정사의 탈을 쓰고 법무사 업무나 변호사 직무 영역을 광범위
하고 **지속적**으로 침해해 왔고.....부당이익을 챙겨왔다...

....(4쪽)...2021.10.26. 고소인 임찬용

위 기사에 첨부된 **첨부물 2** (2차 고소인 진술서) 1쪽을 보면

....피고소인 [] 는

[] 와 공모하여사법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
회원들을 끌어 모은 다음, 그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..

고소장 및 소장을 작성..등.....영업활동을 불법적으로 해오고
있습니다.....1쪽...

.....2021.10.29. 고소인 임찬용

위 내용들을 **불송치 결정서**에 나타나 있듯이 모두 **거짓말**입니다

2022.9. 26 고소인

서울서초경찰서 귀중